

해남군 농촌빈집은행 첫 매매 성사

시행 한달만에…귀촌 희망자 매수
‘철거 후 신축형’ 지원 1호도 입주
거래→신축→정착 선순환 구조 구현

해남군의 농촌빈집은행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첫 매매가 성사되고 ‘철거 후 신축형’ 지원사업 1호 주택도 입주를 완료하는 등 농촌 유휴주택 정비 사업이 시가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통해 화원면 월하마을에 등록된 빈집이 경기도 귀촌 희망자와 매칭돼 ‘농촌빈집은행 1호 거래’가 이뤄졌다.

빈집 실태조사, 현장 확인, 중개 전문가 연계 등 군의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면서 도입 한 달여 만에 실거래까지 이어진 드문 사례라는 평가이다.

농촌빈집은행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등록·공개하고 매도·매수 희망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또 송지면 학가마을에서 추진된 ‘철거 후 신축형’ 지원사업 1호 주택도 최근 입주를 마쳤다.

이 제도는 귀촌·귀향인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매입한 뒤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주자는 해남 출신 귀향인으로 오래된 빈집을 철거한 뒤 새 주택을 건축해 정착을 완료했다.

군은 철거 후 신축형 지원을 확대해 정착 예정자가 직접 빈집을 증·개축해 활용하는 때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착 모델을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빈집은행 등록 확대, 정비·리모델링 지원 강화, 마을호텔 등 지역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 유휴공간을 지역 활력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빈집은행 거래와 철거 후 신축형 사업 모두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단순히 빈집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거래→신축→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에 ‘국제 바둑연수원’ … 380억 투입 2029년 완공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반영

영암군에 세계 수준의 바둑 복합 연수시설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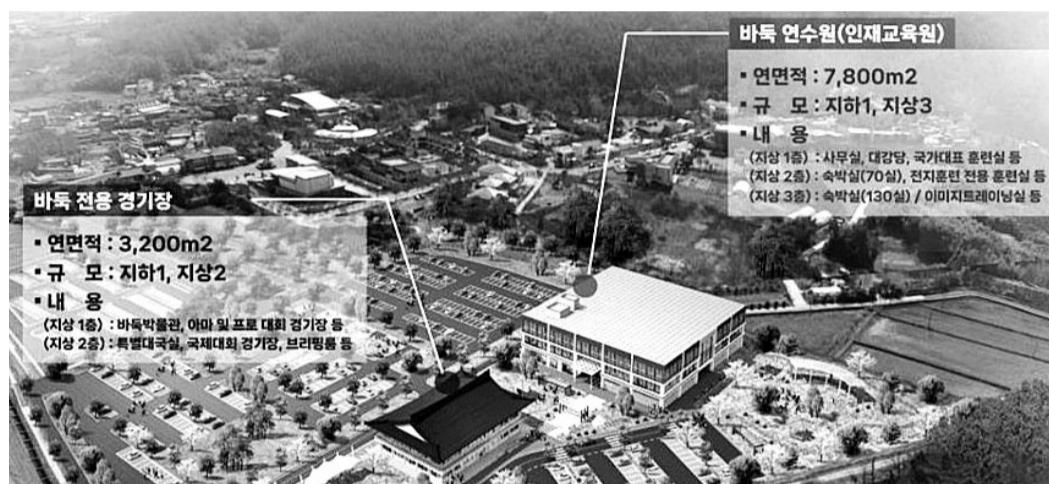
영암군은 최근 국회가 의결한 내년 정부 예산에 ‘국제 바둑연수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제 바둑연수원은 영암읍 일원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로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곳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바둑교육원과 국제대국실, 인재교육관, 바둑기념관 등을 갖춘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체험·관광을 연계한 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또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훈련시설,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 등 4차 산업 맞춤형 바둑 훈련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바둑 인재 육성 및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사업에는 100실의 숙박시설, 다목적 경기장 등 체류형 인프라도 포함돼 국



영암군 ‘국제 바둑연수원’ 계획도.

내·외 바둑 관련 행사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담당하게 된다.

영암은 세계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국수의 고향이자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 개최지이기도 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제 바둑연수원의 국·도비 확보로 영암이 조훈현 국수를 배출한 한국 바둑의 본향을 넘어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세계 바둑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작업 총력 대응체계 돌입

영광군이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와 대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작업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영광군은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주요 장비의 정비를 완료하고 제설장비 텁크를 마무리해 대설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제설준비를 마쳤다.

군은 11월 말까지 제설장비 정비 및 제설자재 확보를 완료했으며, 국도 및 군도 등 26개소에 모래주머니 설치를 마무리했다.

군은 앞으로도 주요 도로와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선제적 제설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철저한 장비 관리와 신속한 제설 대응으로 군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목포시 내년 노인일자리 4178명 모집

19일까지 수행기관 방문 신청

목포시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6 노인일자리 모집 인원은 총 4178명으로 사업 유형별로 공익형 3624명과 역량활용형 414명, 공동체사업 140명을 선발해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목포시청을 포함한 8개 수행기관(목포시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하나님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목포문화원,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접수 후 선

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10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으로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역량활용형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되고 1인 1사업 참여 원칙과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기준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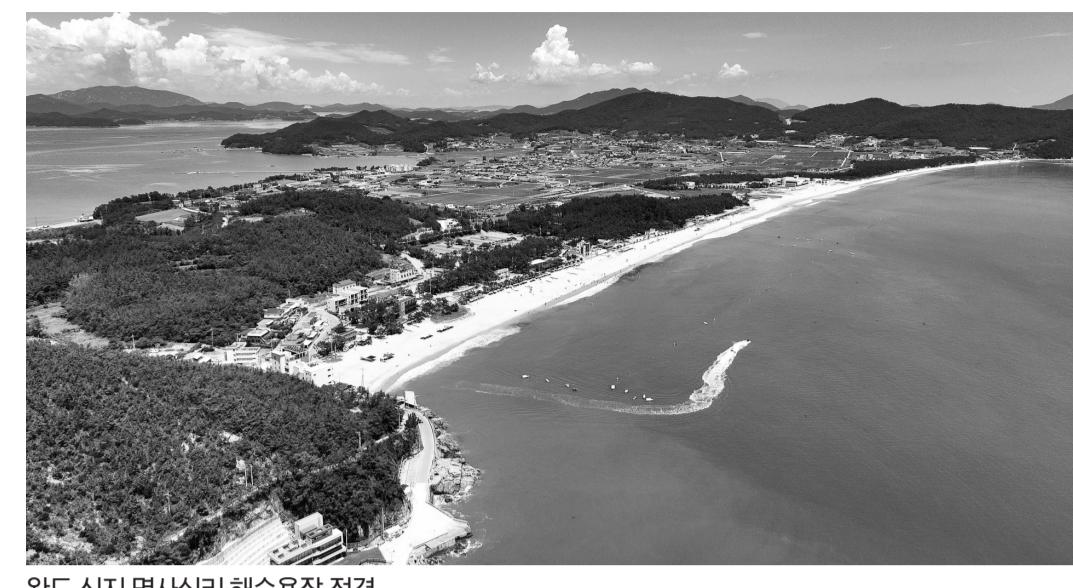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10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으로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역량활용형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되고 1인 1사업 참여 원칙과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기준이 적용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전경.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선정

아시아 최초 8년 연속 국제인증도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4km에 달하는 고운 모래 해변과 아름다운 해안 경관으로 유명하다.

산소 음이온이 도시에 비해 50배 이상 풍부하고 인근에는 해송림과 활토길도 있어 해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이자 ‘아시아 최초 8년 연속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 주어지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받았다.

신지 명사십리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 맨발 걷기, 해변 필라테스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비치 밸리볼 대회, 해양치유 크로스핏 대회, 전국 맨발 걷기 대회 등도 개최했다.

백사장과 아영장 등에 청소 관리 요원 상시 배치, 수질 검사 확대 실시, 방역·식품 위생 업소 점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신지 명사십리 해양치유 중심지이자 사계절 방문객이 찾는 해변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수철 완도군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환경 개선에 힘써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무안예술 한전 전시실 모습.

복합문화센터 ‘무안예술 한전’ 전시 작품 모집

열린 전시실 군민 등 제한 없이 참여

무안군이 무안복합문화센터 2층 무안예술 한전 전시실 작품 전시에 참여할 군민 및 지역 거주 활동 자가들의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전시될 작품을 공개 모집해 무안예술 한전 전시실을 지역의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만들고자 진행된다. 모집 작품으로는 미술, 사진, 공예, 디자인,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신

정할 수 있으며, 작품 주제에도 제한이 없어 평소 취미로 창작 활동을 이어온 주민들도 부담 없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

무안예술 한전 전시실엔 9월부터 사진전, 서예·국화전에 이어 11월부터 진행 중인 공예·서양화전 등 차관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허재경 무안군 문화예술과장은 “평범한 하루가 작품이 되는 순간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작품을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기회를 확대해 생활 속 문화 향유 범위를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원충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성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개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하와 암반사식처

갯벌 위에 출추하는 무희, 사취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개펄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개펄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개펄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